

불보살이 상주하는

북한산 이야기 ⑫ 형제봉



언젠가 두 형제가 마주하고 살 수 있기를...

형제봉 능선에 있는 두 개의 봉우리로 큰 봉우리의 높이는 해발 463m, 작은 봉우리는 해발 641m로 기록되어 있다. 보현봉의 지맥으로 성북구 정릉동과 종로구 평창동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일부 등산 안내서에 이름의 유래와 시원을 알 수 없다고 풀이했는데 이는 오류이다. <속종실록> 49권, <정조실록> 47권에도 형제봉이라는 이름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름의 유래에는 온조, 비류 형제가 나라터를 잡기 위해 올랐다는 설이 있으나 이는 학자들도 부정하는 견해이며, 양명학의 화풍과 도가적 설법을 계승한 정감존 형제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형제봉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단순히 산의 모양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마주한 두 봉우리가 형제처럼 우아롭게 보인다하여 그렇게 불렀을 것이며 이러한 이름은 전국에 적어도 30개 이상 된다는 데서 유추할 수 있다.

아주 옛날 북한산에는 많은 호랑이 가족이 살았다. 그 가족 중에 건과 곤이라 불리는 형제가 있었다. 형 호랑이는 건은 용맹스럽고 강인하여 산중의 왕이었으나 곤은 생각이 많아 사냥도 하지 않았다. 건은 항상 넉넉하게 먹이를 준비해 주었지만 곤이 잘 못될까 염려스러웠다. 건이 어찌하여 사냥도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느냐 물었다. 곤은 지난번 토끼 사냥을 한 후에는 가엾은 토끼가 살려 달라 애원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어찌하면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는지 생각하는 중이라고도 했다.

“그건 모든 생명이 다 마찬가지지. 누군가는 잡아먹히고, 누군가는 잡아먹으면서 사는 게 생명의 법칙이란다. 특히 우리 같은 동물들은 더욱 그렇다.”

형이 말하는 생명의 법칙을 동생 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곤아, 그럼 문수봉에 가서 놀아라. 문수봉자가 너에게 많은 가르침을 줄 거야. 그러다 운이 좋으면 문수보살도 뵈 수 있겠지.”

한없이 선량한 눈을 한 곤이 더 이상 사나운 호랑이가 되어 토끼를 사냥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건은 그렇게 말했다. 곤이 문수봉에 가서 있는 동안 건은 커다란 바위에 늘름한 몸을 쭉 펴고 두 다리를 세우고 앉아 있었다. 문수봉에서 놀고 있는 곤을 지키는 한 편, 자신의 존재를 산 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강한 힘을 가진 숲속의 제왕인 자신을 보고 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기를 바랐지만 곤은 말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힘이 싫습니다. 그래서 다 없애고 싶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건은 그런 동생이 부럽기도 하고 가엾기도 했다. 어느 날 큰 산불이나 미처 파지 못한 동물들이 목

숨을 잃었고 건과 곤 형제도 마찬가지로였다.

“형님, 육십갑자가 열 번 정도 지나면 우리 사람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때 우리 다시 사람형제로 만납시다.”

둘은 꼭 끌어안고 다음 생을 약속했다.

때는 고려 말,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 두 형제, 천(天)과 지(地)는 큰 뜻을 세우고 부모님을 떠나 삼각산에 들어와 공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개경에는 큰 혼란이 일어나고 고려가 망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형제는 당장 산을 내려가고 싶었으나 부모님의 당부가 있었기에 며칠 동안 깊이 생각했다. 형 천은 바위산에 올라가 나라에 대해 생각했고, 동생 지는 문수봉에 올라 기도를 했다. 천과 지는 삼 일 만에 만났다.

“나는 새로운 나라에 가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형님, 우리는 고려의 재상이 되겠다하여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둘은 의견이 달랐다. 그러나 누구 하나의 의견만을 따를 수는 없었다. 대신 각자의 길을 가되,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생각했다. 동생 지는 형에게 말했다.

“형님, 저는 송악산으로 들어가 수도를 하겠습니 다. 때가 되면 다시 뵈지요.”

“그때가 언제란 말이나?”

“육십갑자가 열 번 지난 후입니다.”

“육백년 후라니 그게 말이 되느냐? 지금 당장이 라도 우리 형제가 힘을 합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어야지.”

“육십갑자가 지난 후에 우리가 형제로 만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제는 가슴에 총칼을 겨누 게 될 것입니다. 형제의 가슴에 총칼을 겨누는 사람들 이 물러가고 나면 비로소 태평성대의 기운이 이 강 산을 꼭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형님이 다 시 만나 세상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동생 지는 형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송악산으로 떠났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바위에 서서 다시 만나길 기다리겠다는 형의 절규가 삼각산에 메아리쳤다. 그때 삼각산 봉우리의 수많은 바위들 도 언젠가 두 형제가 이 산에서 마주하고 살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다.

육십갑자가 열 번 지나는 날이 언제냐구요? 그거 야 아무도 모르지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기운과 세상만물이 만들어 내는 기운과 그 기운을 쓸 수 있는 개개인의 기운이 함께 어우러져 평화가 찾아오 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바로 그 날 이겠지요. 세상에는 왜 그러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생각해도 정확하게 대답 할 수 없는 일들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정확 한 것은 모두가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면 우 리가 바라는 좋은 세상이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사실 이지요.

<애기꾼> 조형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오고 싶다는 순례지



신중일 기자 일본 관서 고찰을 가다

⑫ 고야산 ㉔



고야산 곤고부지(金剛峯寺)의 입구(사진 왼쪽)와 경내의 석경 '반류정'. (사진 오른쪽) 곤고부지는 일본 진언종의 총본산으로 고야산 사찰을 대표한다.

고야산은 과거 7000개 이상의 사원이 존재했다.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원이었고 불교도의 성지였다. 현재 고야산에는 진언종 총본산인 곤고부지(金剛峯寺)를 비롯해 117개의 사찰이 상존한다.

곤고부지는 진언종의 시조인 흥법대사 구카이 스님이 표고 활동의 거점으로 삼은 사찰이다. 그런 이유로 곤고부지는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곤고부지라는 명칭은 구카이 스님이 불경에 나오는 '금강봉루각일점유가유기경(金剛峯 閣一切瑜伽瑜祇 經)'라는 대목에서 따온 것이라고 전해진다. 또한 곤고부지는 원래는 고야산(高野山) 전체를 일컫는 명칭이기도 했다. 하지만 1869년 2개의 사원이 통합되면서 사찰의 명칭으로 정착하였다.

곤고부사의 전신인 세이간지(靑巖寺)는 1593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건립했으며, 1863년 재건되었다. 이곳에는 역대 일왕이나 진언종관장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다.

사찰 내에는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동서 길이 약 60m, 남북 길이 약 70m의 분당을 비롯하여, 종루, 서원 등 여러 채의 전각들이 있다. 류묘도(柳鷹圖)가 있는 아나기노마(柳の間)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활복 자살한 곳이기도 하다.

곤고부지에서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는 '반류정(蟠龍庭)'이라는 정원이다. 약 2,340㎡ 규모의 반류정은 일본 최대 석경(石庭)으로 140개의 화강암의 배열은 구름으로부터 나타난 두 마리의 용이 절을 보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야산 순례의 하이라이트는 공동묘지인 '오쿠노인(院)' 참배이다. 곤고부지에서 오쿠노인까지는 버스로 10분정도 이동해야 한다. 오쿠노인을 일본인들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꼭 한번은 가 봐야 하는' 일본 최고의 성지라고 말한다.

흥법대사 구카이 스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이어



고야산 순례의 백미 오쿠노인(院).



일본 진언종 총립 고야산 대학.

日 진언종 본산 곤고부지서 구카이 스님 발자취 느껴 20만기 무덤있는 오쿠노인 전나무 숲길 걸으며 '힐링'

지는 2km 참배로에는 20만기 묘비들이 상존한다. 그 옆에는 500년 가량의 삼나무 숲과 함께 펼쳐져 있다. 이들 묘비는 황실, 귀족, 다이묘(大名) 등의 묘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 만들어진 오쿠노인의 비석들은 재미있다. 석탑은 기본이고, 커다란 구슬, 커피잔, 심지어는 로켓까지 있다. 실제 커다란 구슬은 빠짐코 회

사 회장의 묘이며, 커피잔은 유명 커피메이커 대표 가문의 묘이다. 고베, 동일본 대지진으로 희생된 영령을 기리는 위령탑과 묘도 있었다.

구카이 스님의 묘가 있는 곳은 묘자를 벗고 예를 갖추어 할 정도로 성지로 극진히 모셔져 있다. 카메라 촬영은 일정 금지이며 말 소리도 낮춰야 하는 '침묵의 장소'이기도 하다.

고야산에는 따로 숙박업소가 따로 없고 사찰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예부터 참배객들이 쇠도했기 때문에 발달한 문화로 숙박을 운영하는 사찰을 '슈쿠보(宿坊)'라고 한다. 현재는 53개의 슈쿠보가 운영중인데 참배객이 임의로 골라서 묵을 수가 없고 와카야마현에서 무작위 배정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슈쿠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일본의 사찰 음식인 '쇼진(精進)요리'이다. 고기와 생선류를 사용하지 않고 산나물과 야채로만 만든다. 파, 양파 등 향이 강한재료 또한 사용하지 않으며 제철 식재료만 활용해 맛이 담백하다.

고야산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를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학교이다. 고야산 영지 내에는 고야산 대학을 비롯해 소학교(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설립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야산 대학의 경우 진언종 수행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교육기관이다.

흥법대사 구카이 스님이 개창하고 일본 최고의 성지로 자리매김한 고야산은 2015년 창건 1200주년을 맞는다. 전통을 지키며 시대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일본 불교의 단면을 고야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원고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전통 '조왕탱화' '반야용선'

조왕탱화

부림의 신인 조왕신(부림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龕王壇)에 봉안된다.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상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 龕王大神(나무조왕대신)'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크기 : 가로 61cm × 세로 91,5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반야용선

어지러운 세상을 넘어 피안의 극락정토에 갈 때 탄다는 배를 말한다. 반야(般若)란 모든 미혹(迷惑)을 끊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이나 모든 법을 통달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뜻한다. 반야용선도는 망자를 위해 걸었던 그림으로, 그림에는 보통 좌로부터 극락의 주인인 아미타부처, 극락으로 인도하는 것발을 든 인로왕보살, 반야용선과 망자가 표현되며 슬픔에 젖은 유가족이 그려지기도 한다. 즉 반야용선이 그려진 것은 망자가 아미타부처가 계시는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往生)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크기 : 가로 90cm × 세로 130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조왕탱화

반야용선

한 탱화 수강 신청안내

불묘의 도움을 받아 한 탱화 조성 과정(1.출초 2.배접 3.야교 포수 4.도채 5.바림 6.문양 7.금니 및 황선꽃침 8.금박붙이기 9.상호 10.틀 신기 11.발미)을 통해 탱화의 기초와 기능을 함께 배우면서 완성도 높은 예배용 탱화의 완성이 목표

- 모집분야 : 한 탱화와, 기초기법(도안)과, 교육 민화(단청)과
- 모집인원 : 서울(한 탱화와 20명 / 교육 민화 단청과 20명), 광주(한 탱화와 10명 / 기초기법 도안과 10명), 부산(한 탱화와 10명)
- 교육장소 : 서울 -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전통채색학교, 광주 -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008-16 한국전통채색학교, 부산 - 진구 연지도 부산시민공원 인근 한국전통채색학교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교육일정 : 2013년 10월 16일 - 2014년 3월 16일 (5개월)

성유불화원 금어 조성철 합장
문의 051)332-0045 / 010-9216-0988